

스태틱드라이브 방식
LDM 개발

광전자

발광다이오드(LED) 전문업체인 광전자가 스태틱드라이브 방식의 전광판용 320mm LED도트 매트릭스(LDM)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 다이내믹 방식과 달리 각각의 LED에 전류를 공급, 밝기를 조절함으로써 휘도가 밝고 외부 케이스를 견고한 재질로 제작, 열악한 환경에 견뎌야 하는 옥외용에 적합하다.

또 이 제품은 기존 정사각형 모양을 개량, 320×160mm 사이즈로 제작돼 활용도를 높였으며 자체 생산한 LED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과 함께 물론 전광판에서 가장 중요한 품질요소인 휘도의 균일성을 확보했다.

광전자는 이달중 스태틱드라이브 방식의 실내용 저가형 320mm 풀컬러 LDM과 옐로그린 LED를 사용, 휘도를 2배 이상 향상시키고 천연 색상을 강화한



128mm 풀컬러 LDM도 출시할 예정이다.

고성능 2MOLD LED
Lamp 개발

광전자

국내 Opto 소자의 대표기업인 광전자(주)는 2001년 1월, 고휘도,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교통신호등 및 옥내외용 전광판 시장을 Target으로 2MOLD Type 고성능 LED Lamp 개발에 성공하여, 획기적으로 신뢰성을 개선시키고 동일 밝기에서 소모전력이 30%이상 개선된 3φ, 5φ LED를 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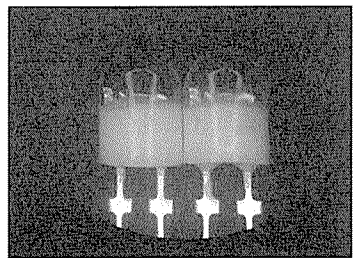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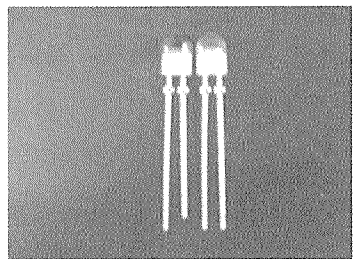
이번 신제품은 2000년 12월 3일, 개발완료 즉시 양산체제를 구축하여 금년초부터 본격적인 출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2002년 월드컵까지 폭발적 수요가 예상되는 전광판 및 LED 교통 신호등용으로 연말까지는 월 4,000만개의 양산 체비를 갖출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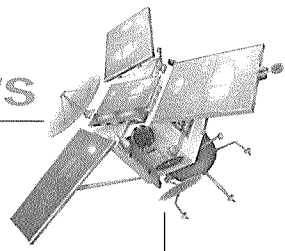
기존의 LED는 장시간 사용시, 열적 스트레스에 의한 열화의 영향으로 휘도가 낮아지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으나, 광전자(주)는 Package 구성 재질중 전용 MOLD수지를 새로 개발 적용하고, MOLD구조를 2중 MOLD구조로 개선하여 발광 Chip(LED)으로 부터의 열방출

능력은 물론 응력을 최소화 시켜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광출력은 종전대비 30%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 기술을 광전자(주)는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대만, 일본, 미국에도 국제특허를 출원 중에 있어 동종업계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이처럼, 광전자(주)는 새로운 개념의 LED Packageing 기술을 기존의 제조기술에 접목시켜 큰 비용 상승의 부담없이 저가격, 고품질, 고 신뢰성의 제품을 만듦으로서 장시간 사용에 적합한 교통 신호등, 옥내외 전광판, 자동차 Stop Lamp 용도의 High Power LED Lamp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HP, 샤프 등 해외업체에 잠식당한 시장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네트워크 장비 개발

기가링크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기가링크는 최장 1.2km에 최대 6Mbps의 속도로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네트워크 장비 「T-LAN 50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스위칭 허브 기능이 통합돼 있고 가입자 수용용량이 22가입자로 매우 경제적이다.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보드를 내장, 원격으로 망관리 및 전송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또 가상랜(virtual LAN)기능은 세대별 포트를 분리시킬 수 있어 세대간 보안유지가 가능하며 2개의 업링크(up link)포트를 제공, 가입자 증설이 편리하다. 범용의 IEEE 802.3x 인터페이스를 가진 어떤 장비와도 접속이 가능해 BWLL·ADSL·전용회선·케이블모뎀·위성 등과 함께 구성할 수 있다.

기가링크의 기술실장은 「이번에 개발된 제품의 포트당 가격은 ADSL의 절반이하에 불과하지만 성능은 SDSL보다 우수하

다」고 설명했다.

기가링크는 오는 6월부터 「T-LAN 500」의 양산에 들어가 올해 이 제품의 판매를 통해 3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산업 디스플레이 전용 '벽걸이 TV' 출시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산업 디스플레이 전용 벽걸이 TV를 출시하여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간다.

대우전자가 출시한 이 제품은 스피커를 분리할 수 있어 회의실이나 대기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산업 디스플레이 전용으로 사용이 적합하며, 특히 42인치급 와이드 벽걸이 TV로서는 가장 얇은 8.3cm로 공간활용도를 높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컴퓨터나 DVD, 디지털카메라 같은 외부기기와 별도의 주변기기 없이 직접연결이 가능하여 고선명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랜(LAN) 카드를 내장할 수 있어 병원이나, 터미널, 학교 등에서 LAN망을 구성하여 원격제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벤트나 전시회 등에서 각종 영상기기로 이용이 편리하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할 때에도 스피커를 분리 설치하여 디지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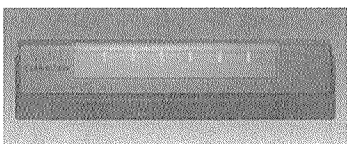
입체음향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DVD나 컴퓨터 등을 연결한 가정용극장(Home Theater)를 손쉽게 꾸밀 수 있는 SD급 디지털레디(Digital Ready) 제품이다.

대우전자는 국내 최초로 공기순환 방식을 이 제품에 적용했는데, 지금까지 벽걸이TV는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6개의 냉각팬을 장착하여 약 32db의 소음이 발생하였으나, 이 제품은 자연대류방식의 최적 방열설계로 완벽한 무소음을 실현한 최초의 벽걸이TV이다.

'99년 5월 국내 최초로 벽걸이TV를 시판한 이후 이번에 두 번째 산업 디스플레이 전용 모델을 출시하는 대우전자는 기존 모델대비 소비전력 및 제품중량을 각각 20%씩 향상시켰으며, 전세계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제품 동작시 사용언어도 8개 공용언어를 채택하였다.

지난달 영국의 산업 디스플레이 전문업체인 GB인터내셔널과 3년간 2만대공급이라는 사상초유의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한 모델도 바로 이 모델로서 벌써부터 국내의 산업시장에서 인기가 좋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대우전자 디지털사업부장은 "벽걸이TV는 디지털시대의 첨단 디스플레이 기기로 각광받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디지털 방송이 본격화되는 2005년경 부터



는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월드컵개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벽걸이 TV가 급속하게 가정으로 보급될 것으로 보이는 등 전세계 벽걸이TV 시장 규모가 올해 120만대에서 2005년에는 1천만대 규모의 1백억달러 규모로 급성장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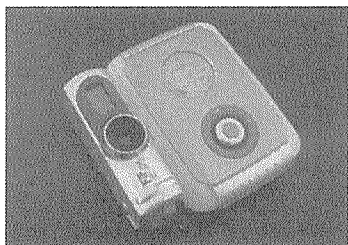
인코더칩 내장 단말기 공동개발

디지탈웨이브

PC없이 MP3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다.

MP3관련 전문개발업체 디지탈웨이브와 넥스트웨이는 라디오나 오디오의 음악을 실시간으로 MP3인코더칩이 내장된 단말기를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 개발을 통해 기존에 PC를 통해서만 MP3파일을 다운로드받아야 했던 불편함에서 벗어나 PC를 모르거나 구비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사용이 가능해 MP3플레이어 보급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일본의 아이와제 품이 고가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과 달리 이 제품은 저가 MP3 인코더 칩을 이용해 기존 제품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될 계획이다.

이와함께 MP3시장확대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있는 저작권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소해 줄뿐만 아니라 추후 제품에 SDMI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평면형 TV 안테나 개발

맥스웨이브

VHF와 UHF대역은 물론 FM 대역까지 수신할 수 있는 평면형 TV수신 안테나가 대덕밸리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디지털 TV용 중계기와 안테나를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는 맥스웨이브는 기존의 실내용 안테나 형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평면형 TV 수신 안테나를 개발, 양산체제를 갖췄다고 밝혔다.

맥스웨이브가 이번에 개발한 평면형 안테나는 기존에 나와있는 실내용 입체 안테나와는 달리 VHF대역인 54~216MHz, UHF대역인 470~890MHz, FM 대역인 88.1~107.9MHz까지 한꺼번에 수신할 수 있는 등 평면 안테나 하나로 모든 방송 수신

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안테나가 A4용지 크기에 불과해 PC의 TV수신카드에 연결해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컴퓨터 마우스 패드 대응으로나 TV 옆면 또는 위 등 설치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또 종이합판 위에 동판을 효율적으로 배치, 최고의 수신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가격이 4달러대로 비교적 저렴해 선물관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맥스웨이브는 지상파 TV용 평면형 안테나 이외에도 위성용 평면형 안테나 개발이 마무리 상태에 들어가 있으며 조만간 국내 유일의 디지털 TV용 중계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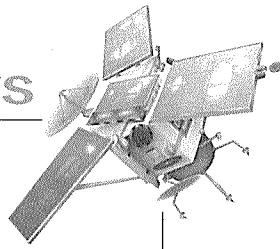
맥스웨이브 사장은 「중국·미국·일본 등의 선진국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LCD 다중 디스플레이시스템 개발

보문전자

디스플레이 전문업체인 보문전자가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TFT LCD 다중 디스플레이 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월 시스템은 녹화된 영상을 단순히 디스플레이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실시



간 인터넷 정보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여러개의 LCD 패널을 이어붙여 화면분할과 통합을 실현했다.

보문전자 사장은 「크기에 따라 필요한 수만개의 LCD를 조립할 수 있어 초대형 화면구현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제품 개발을 계기로 월드컵, 올림픽 등에 이번 월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램버스 D램 모듈기판 증산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최근 인텔과 삼성전자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램버스 D램 시장의 확대를 계기로 램버스 D램용 모듈기판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기는 전체 램버스 D램 최대 공급업체인 삼성전자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 현재의 전자 점유율 50%를 연내에 60%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층회로기판(MLB) 기획본부 과장은 “지난 99년도에 이미 기판의 전기적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인 저유전을 원판을 국산화하는데 성공, 자체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램버스D램 모듈기판의 생산비중을 확대해 고수의 구조로의 사업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기는 램버스D램 기판의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저부가 IC-모듈생산비중을 축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라인은 일부공정을 보완, 현재의 월 생산능력 60만개를 연내에 100만개까지 확대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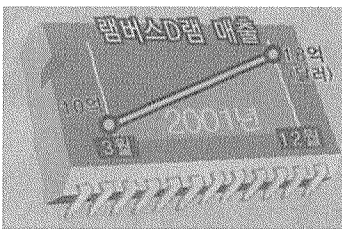
이같은 증산규모는 지난해 보다 3.5배 증가한 것으로 삼성측은 올해 700만개의 램버스D램 모듈기판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램버스D램 모듈기판에서만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램버스 D램 매출 10억달러 돌파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차세대 초고속 반도체인 램버스 D램의 매출이 1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지난 1월에 500만개, 2월에 700만개, 3월에 1000만개를 생산, 누적 기준으로 2200만개의 램버스 D램을 생산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월 1500만개의 램버스 D램을 생산, 연간 기준으로 총 1억2000만개의 램버스 D램을 생산할 계획이다. 올해 램버스 D램의 평균 가격을 개당 15달러(현재가격은 개당 18달러)로 가정할 경우 올해 램버스 D램 부문의 총 매출은 18억달러에 달한다.

IMT-2000 단말기용 8M 저전력 S램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IMT-2000(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용 8메가비트 저전력형 S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S램 제품은 대용량과 1마이크로암페어(μA) 이하의 저소비전류, 2.5V에서 55ns의 고속 데이터 처리능력을 갖추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삼성은 이번 제품에 0.13미크론급 미세공정기술을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0.10미크론, 2003년 0.08미크론 제품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놓고 시장



선점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 제품은 올 연말까지 생산 라인을 마무리, 내년 초부터 본격 양산된다.

압전부품사업 참여

세라텍

세라텍은 최근 일본 히타치금속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 계약을 맺고 압전(piezoelectric)부품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일본 히타치금속으로부터 기술 및 설비를 이전받아 인버터생산에 나서기로 하고 우선 압전 인버터의 중요한 기능부품인 압전 트랜스포머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히타치금속은 원가절감에 따른 시장경쟁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세라텍은 압전 트랜스포머 및 압전 인버터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향후 압전부품 연관사업을 기존의 노이즈 필터 사업과 연계해 펼쳐 나간다는 전략이다.

세라텍은 「압전 인버터는 전력효율이 뛰어나 노트북PC·LCD모니터·PDA 등에 적합해 향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설비의 대부분을 히타치금속에서 무상공급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부담이

적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IT기기 부품사업 진출

자화전자

자화전자가 정보통신기기 부품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이 회사는 최근 정관에 정보통신기기부품사업을 추가하고 이동통신 단말기 진동모터, RF스위치 등 각종 관련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CDMA 및 IMT 2000용 800MHz 듀플렉서를 개발해 양산에 들어간 데 이어 4월 내로 4억원을 투자, 이동통신 단말기용 코어리스 진동모터를 양산할 예정이다.

이번에 양산될 진동모터는 4파이 실린더 타입으로 공정단계를 기존보다 3단계나 줄여 30% 이상의 생산비용을 절감해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자화전자는 현재 PCS용 듀플렉서를 비롯해 GSM단말기 시장을 겨냥, 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듀얼 밴드용 SMD형 RF스위치모듈을 공동 개발중이다. 이 제품들은 각각 5월 말과 연말 중으로 생산될 계획이다.

초고속 인터넷장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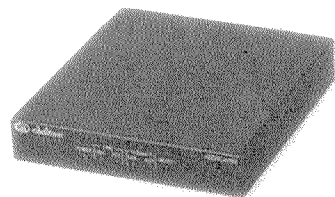
아이디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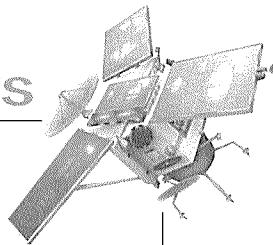
네트워크 장비 생산업체인 아이디텍통신은 초고속인터넷 장비인 nEOVL(new Ethernet Over VDSL Line)을 개발하고 지난 3월 20일 서울 조선호텔 오키드 룸에서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데이콤 등 통신사업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선보인 nEOVL은 상하향 10Mbps 속도로 1km까지 전송이 가능해 별도의 근거리통신망(LAN) 케이블을 설치할 필요없이 건물 내 전화선을 통해 주문형비디오(VOD)와 원격교육 등 다양한 양방향 영상서비스를 받아들 수 있다.

이 장비는 또 스위칭 허브 기능을 갖추고 있어 대당 30만원 정도인 허브 장비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고 국제 규격에 의한 통신망관리시스템(SNMP)이 내장돼 있어 관리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특히 nEOVL은 향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기본 인프라가 될 「광+LAN」 방식이며 기존 전화선을 LAN처럼 이용할 수 있어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과는 별개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1·2등급을 받은 아파트단지의 구역 내용으로 적합한 장비다.

유럽형 케이블모뎀 개발

아이케이블시스템

통신장비 벤처기업인 아이케이블시스템이 유럽 케이블 TV망 규격에 맞춘 케이블모뎀 「ICS-110E」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현재 유로닥시스(EuroDOCSIS) 인증기관인 벨기에 티컴랩스(tComLabs)에서 ICS-110E의 상호운용성 인증 예비시험을 하고 있으며 4월에 정식 인증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로써 아이케이블시스템은 지난해 출시한 닥시스 규격 케이블모뎀인 ICS-110, 울초 선보인 VoIP케이블모뎀인 ICS-112와 함께 전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초소형 LPA 독자 개발

RFCC

RF 전문 벤처기업 RFCC는 그동안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 온 선형전력증폭기(LPA)를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PA는 이동통신 시스템인 셀룰러와 PCS·IMT2000 기지국 및 중계기의 송신단에 사용되는 RF 모듈 중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RF 증폭기로 기지국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약 30%를 LPA가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이번에 개발된 LPA는 기존 제품에 비해 크기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면서도 성능은 기존 제품에 뒤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순수 자체설계기술 확보를 통해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RFCC측은 설명했다.

또 회로의 간소화로 주문생산에서 AS까지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LPA의 시장은 연간 2000억원대로 RFCC는 이번에 개발한 신형 LPA를 통해 내수시장에서만 연간 200억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또 IMT2000서비스가 본격화되면 3배 이상의 매출 신장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 사장은 「이번 제품을 개발하며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LPA개발에 박차를 가해 IS95C 및 IMT2000 서비스

시장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자동 구축 엔진 개발

엔코모닷컴

대덕밸리내 인터넷 솔루션 벤처기업인 엔코모닷컴은 대규모로 웹사이트를 자동 구축할 수 있는 「페이지플로 엔진(pageflow engine)」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 구축 솔루션인 「페이지플로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페이지플로 엔터프라이즈는 서버에서 독립된 웹사이트를 무제한 생성할 수 있으며 각종 회원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통계관리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서버에서 생성된 각 웹사이트에서는 전자계시판과 웹 메일링리스트, 전자앨범, 투표 및 설문조사, 문서관리, 채팅과 같은 다양한 기능이 컴포넌트로 제공된다.

또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쉽도록 필요한 기능의 추가와 삭제가 자유로운데다 HTML 페이지를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제품 응용 범위는 초·중·고·대학 및 단체 등 커뮤니티

구축을 희망하는 관련기관과 ISP 관련업체 등 다수의 독립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는 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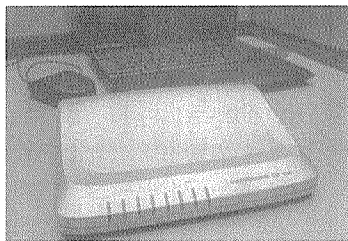
엔코모닷컴 사장은 「현재 구매자의 웹서버에 독립적인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토록 하는 소규모 사이트 구축용인 「페이지 플로-i Pack」버전을 개발중에 있다」며 「오는 6월중 패키지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선 랜 시장 공략 '시동'

LG전자

LG전자는 무선 라우터와 AP 장비·브리지 장비·무선LAN 카드 등 무선 LAN 솔루션을 개발,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2.4GHz 대역폭을 지원하는 무선 라우터와 라우터와 단말기 사이에서 기존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며 단말기까지 무선으로 연결 가능한 AP(Access Point)장비, 인근 빌딩 등으로 400m~5km를



무선으로 공유할 수 있는 브리지 장비, 그리고 무선 LAN카드 등을 포함한 무선LAN 솔루션이다.

특히 무선 라우터(GoldStream LW1100)는 국내 처음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네트워크로 이동시 새로운 IP주소를 할당받을 필요 없이 자신이 쓰던 고유의 IP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확장된 로밍 기능, 즉 모바일 IP기능을 제공한다.

옥외용 브리지 장비(GoldStream LW1100B)는 지향성 안테나를 부착할 경우 최대 5km까지 전송이 가능하며 여러 건물로의 멀티포인트 접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용회선을 공유해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초고속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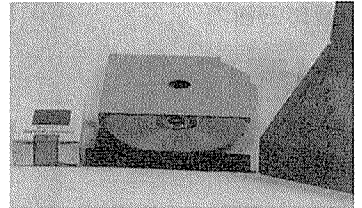
노트북용 CDRW 드라이브 개발

LG전자

LG전자는 8배속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노트북PC용 CDRW 드라이브 「GCE8080N」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데이터 기록과 재기록은 8배속, 일반 CD롬 재생은 24배속을 지원한다.

8배속 데이터 재기록과 재기록된 CD의 20배속 재생은 현재



출시된 제품 가운데 가장 빠르다.

이 제품은 LG전자가 처음으로 채택한 데이터 기록 방법인 이그젝트 링크 평션 기능을 사용해 고속 데이터 기록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문제를 해결했으며 특히 핵심 부품인 광표면을 자체 개발해 기술확보 및 가격경쟁력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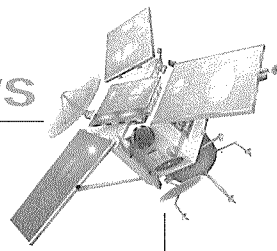
또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크기를 두께 12.7mm, 무게 195g으로 줄였으며 전력 소모량도 사용시 980mA, 대기시 50mA에 불과하다.

32인치 HD급 디지털 TV 출시

LG전자

오는 9월 디지털 TV 본방송을 앞두고, LG전자가 32인치 와이드형 HD급 디지털TV(모델명 HN-32Q8)를 국내시장에 출시해, 디지털 TV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이 제품은 완전평면 브라운관을 채용한 16:9 와이드 화면으로 일반 아날로그 TV 보다



4~5배나 선명해 사람의 땀구멍까지 보일 정도로 뛰어난 고화질을 구현하며, 셋톱박스(디지털 방송수신기:Set Top Box)를 내장하고 있는 일체형 디지털 TV이다.

특히,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 TV 영상처리용 원칩(One Chip)을 채용해 보다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 돌비 디지털 AC-3 (Audio Coding-3) 채용으로 CD 수준의 고음질 입체음향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PC나 DVD 등 다양한 디지털 제품과의 연결을 위한 입력 단자를 장착해 수준 높은 홈씨어터(Home Theater)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이외에도 32인치 HD급 디지털 TV로는 국내 최초로 화면안에서 다른 채널을 볼 수 있는 PIP (Picture In Picture)기능, 기존 화면을 축소한 후 화면 밖에서 다른 채널을 볼 수 있는 POP(Picture Out Picture) 기능 및 TV 설정을 화면으로 보며 조작할 수 있는 OSD (On Screen Display)기능 등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그 밖에 디지털 방송 튜너(ATSC)와 아날로그 방송 튜너

(NTSC)를 모두 내장해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송을 모두 시청할 수 있으며, 유럽풍의 고급스런 디자인을 강조했다.

LG전자는 99년부터 HD급(고화질) 일체형 디지털 TV 2개 모델과 HD급 분리형 1개 모델, SD급(표준화질) 분리형 디지털 TV 13개 모델을 출시한데 이어, 이번에 32인치 일체형 HD급 디지털 TV를 출시, 오는 9월 디지털 본 방송을 앞두고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디지털 TV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제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또한, 이달들어 초슬림형 40인치 디지털 PDP TV와 20.1인치 디지털 LCD TV를 국내시장에 출시 했으며, 올해안으로 42인치, 60인치 PDP TV를 비롯한 3-4개 모델을 추가로 출시해 20인치에서 60인치대에 이르는 다양한 디지털 TV 제품군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미국 디지털 방송 전송 방식인 VSB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LG전자는 영국형 디지털 TV, 미국형 디지털TV를 출시하고 있으며, 축적된 디지털 TV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전평면 브라운관 방식을 비롯, 대화면 프록젝션 TV '엑스캔버스(X-canvas)', TFT-LCD, PDP등 디지털 영상 제품 분야에서 2003년까지 세계적 브랜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최초 20.1인치 LCD TV 출시



LG전자가 20.1인치 디지털 LCD TV (모델명: LN-20A2)를 국내시장에 출시해 중대형 LCD TV 시대를 열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두께가 7.1cm에 불과한 초슬림형 제품이며, LCD TV의 약점으로 인식되어온 화질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북대학교와 산학 공동으로 개발한 CCT(Co-related Color Temperature: 색온도 편차방지) 회로를 채용, 일반 브라운관 TV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화질을 구현한다.

또한, DRP (Digital Reality Picture: 숨은영상 재현) 회로를 채택해 화면의 어두운 부분도 밝고 선명하게 볼 수 있다.

한편, DVD 및 DTV 수신단자가 장착돼 있어 일반 아날로그 TV 수신은 물론 SD(Standard Definition, 표준화질)급 디지털 방송 수신도 손쉽게 즐길 수 있다.

특히, 고급 오디오 제품에 적용하던 '디지털 입체음향' 칩(DSPIC) 및 '분리형 Hi-Fi 스피커'를 채용해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를 제공한다.

이 제품은 별도 판매되는 '무선 송수신기'를 장착하면, TV와

외부 영상기기를 연결하는 선 없이도 영상과 음성신호를 자유롭게 송수신할 수 있다. 또한, 용도에 따라 벽걸이, 스탠드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벽걸이 형태로 사용할 경우 거실 벽면에 부착해 TV, VCR, DVD를 통한 영화감상을 즐길 수 있고, 별도 판매하는 스탠드 랙을 이용하면 자유롭게 위치를 이동시키며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 99년 9월 15.1인치 LCD TV를 국내 시장에 첫 출시한 이후, 이번에 국내업체로는 처음으로 20.1인치 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가격도 290만원대로 400만원 이상인 외산제품에 비해 월등히 저렴해 그동안 샤프(Sharp) 등 일본업체들이 주도해오던 국내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LCD TV는 브라운관 대신 TFT-LCD (초박막 액정표시장치)를 사용한 제품으로, 얇고 가벼우며 크기도 아담해 가정용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방송의 등장으로 PDP TV와 함께 벽걸이 TV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세계시장 수요는 지난해 21만대에서 올해는 52만대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며, 내년에는 180만대, 2003년에는 250만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15인치 제품군이 주력모델로

50%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20인치 이상 대형제품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향후 DVD, 메모리 카드 등과 결합된 다양한 복합제품의 개발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LCD TV 시장은 LG전자를 비롯해 일본의 샤프, 마쓰시타, NEC 등이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LG전자는 올해 안에 LCD TV 2-3개 모델을 추가로 개발해, ▶디지털 PDP TV ▶디지털 완전평면 TV ▶LCD 프로젝터 ▶LCD 프로젝션 TV 등 관련 디지털 제품군과 연계,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음성제어 홈시스템 개발

와이즈박스텔레콤

음성만으로 집안의 조명과 난방, 각종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신개념의 아파트가 선보인다.

홈오트메이션 전문업체인 와이즈박스텔레콤테크놀로지는 최근 음성제어 홈시스템인 '보이스 아파트'를 개발했다.

'보이스 아파트'는 사람이 말을 하면 컴퓨터가 이를 인식해 집안내의 조명, 난방, 가스, 각종 가전기기가 작동하는 것으로 그동안 가상현실에서나 가능했던 최첨단 시스템이다.

특히 유·무선 전화를 통한 음성신호로 집밖에서도 제어가 가능해 추운 겨울철에는 난방보일러, 가스제어 등이 전화 한통화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와이즈박스는 지난해 말 대아건설과 25억원 규모의 음성인식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대아건설 대전 목동 모델하우스에서 이를 시연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국 최대의 아파트 분양회사인 YEHE사와 계약을 맺고 3000세대 규모의 신규 건립아파트에 와이즈박스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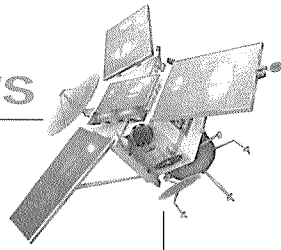
이 회사의 관계자는 '보이스 아파트' 단일 제품군이 올 한해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50% 이상은 중국 일본 미주 등 해외 수출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음성인식 자동교환시스템 개발

웰컴넷

웰컴넷은 음성인식 무인자동교환시스템 「슈퍼다이얼」을 개발,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슈퍼다이얼」은 기존 음성자동응답시스템(ARS)에 음성인식·음성메시징시스템(VMS)·단문메시징시스템(SMS) 등의 기능을 추가해 기업 내 교환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발신자가 「슈퍼다이얼」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을 경우 상대방의 이름이나 부서만 말하면 전화가 자동으로 연결되며 상대방이 부재 중일 때는 음성메시지를 작성해 상대방의 전자우편 계정으로 자동송신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은 전자우편으로 도착한 음성메시지를 외부에서 SMS 서비스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끊김없는 인터넷솔루션 개발

지이스테크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지이스테크는 ISDN과 ADSL을 백업회선으로 활용해 전용선 장애시 자동으로 전환돼 인터넷을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모델명 X솔루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회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문제 발생시 자동으로 ADSL 또는 ISDN 회선으로 전환되도록 구성돼 있고 전용선의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전용선으로 자동 전환된다.

또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어 외부에서 접근시도가 있을 때 내부에서 나가는 주소를 변환해 전송

을 하므로 외부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지이스테크는 이번에 개발된 솔루션이 백업 및 트래픽 분산 기능이 뛰어나 인터넷 PC방과 증권회사, 인터넷 벤처기업처럼 전용선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곳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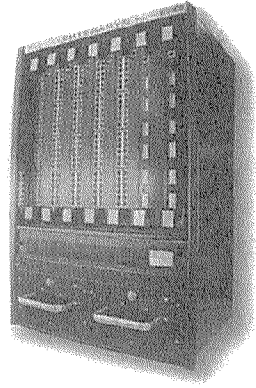
특히 이 솔루션은 서버를 중심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로컬웹 서버와 동영상, VOD서버로의 기능을 기본으로 내장하고 있어 동영상 채널사업, PC방 네트워킹 사업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초고속 메트로 이더넷 공동 개발

파워넷

파워넷은 미국 월드와이드패킷(WWP)사와 상호 기술제휴를 맺고 파워LEE(Power Lightning Edge Ethernet)를 공동개발했다고 밝혔다.

초고속 메트로 이더넷 제품인 파워LEE는 기존 데이터 중심서비스에서 벗어나 음성·비디오가 통합된 인터넷·주문형비디오(VOD)·원격진료·HDTV 등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최고 기가비트 속도로 제공하며 시스템 관리·서비스 보안·고객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가 탑재돼 사이버아파트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병원·산업공단 등 단일 네트워크 구성 사업체에 적합하도록 설계됐다.

파워넷은 이 장비가 백본망에서 FTTH(Fiber To The Home)·FTTO/B(Fiber To The Office/Building)까지 광인터페이스를 제공, 디지털가입자회선(xDSL)에 비해 서비스 거리 제한이 없으며 64kbps 단위의 대역 폭 조절 기능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상 수여

한국물렉스

지난 3월 19일 한국물렉스는 Barrel Line(도금장비)의 국산화 제작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 협력 업체상을 수여하는 기념식

을 한국물렉스 대회의장에서 자
졌다.

도금장비의 국산화에 따라 장
비 구입비에 있어 초기 투자비
에 큰 경비절감을 실현할 수 있
었으며 수입장비 대체 효과로
약 5억5천만원의 절약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향후 A/S에 있어 신속
하고 정확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새로 제작할 계획에
있는, 금 도금을 위한 새로운 도
금장비의 개발, 제작에도 상호협
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점차
많은 장비의 국산화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선정된 업체는 호진 플라텍
(주) : 도금약품 제조회사, 에스
아이테크(주) : 반도체 장비 및
도금장비 제작업체, 컨버텍크
(주) : Power supply 및 정류기
제작업체, 신도건공(주) : 환경
설비(대기처리설비 포함) 제작
업체이다.

이의 협력업체로의 선정 및
수여로 선정된 업체와 한국 물
렉스간에 협력업체로서 상호 신
뢰성 구축 및 상호 발전(기술향
상 및 Cost saving)을 기대한다.

카세트형 MP3P 세계 첫 개발

히트정보

PC를 거치지 않고 일반 오디
오에서 바로 디지털음악을 녹음
할 수 있는 카세트형 MP3플레
이어가 개발됐다.

히트정보는 이번에 개발에 성
공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전자
테이프(C@MP-UR64)」를 3월
22일부터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
된 「2001 세빛」 전시회를 통해
선보였다.

기존 카세트테이프와 동일한
모양의 디지털 전자테이프는
CD·라디오·카세트테이프 등
에서 나오는 소리를 일반 카세
트 테이프를 이용해 편리하게 녹
음(인코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별도의 장치
없이 휴대형 MP3플레이어로 사
용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녹음
기능이 있는 기존의 오디오 테
크에 삽입, 녹음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디지털 전자테이프에 장착
된 헤드를 통해 일반 아날로그
음원이 내부의 플래시 메모리에

디지털 음원으로 변환돼 녹음되
는 방식이다. 또한 USB케이블
을 통해 녹음된 파일을 컴퓨터
에 업로드할 수도 있다.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므로 음이 늘어
지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없으며
기존의 카오디오나 일반 테크와
도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것이
업체측의 설명이다. 또 9시간 녹
음이 가능한 보이스 리코딩 기
능도 지원한다.

히트정보는 이미 98년 이 기
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을 끝
냈고 전세계를 상대로 한 특허
협력조약(PCT) 출원도 마친 상
태라고 밝혔다.

히트정보 사장은 「이 제품은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CD, 카세트테이프 등의 음악을
자신의 홈오디오데크에 디지털
전자테이프를 삽입해 손쉽게 녹
음, 저장할 수 있어 반드시 PC
를 거쳐 MP3 음악을 저장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없앴다」
며 「특히 더블테이프를 통해 기존
의 영어회화나 교육용 자료를
녹음할 경우 LCD리모컨으로 반
복기능이나 구간 탐색기능을 이
용할 수 있어 어학용으로 매우
편리하다」고 덧붙였다.